막오른 1조원 규모 목포시금고 유치전

연말 약정기간 만료 앞두고
기업은행·농협·광주은행 3파전
시, 10·11일 제안신청서 접수
16일 심의위원회 열고 선정

"1조원 규모의 목포시 금고를 잡아라."

목포시가 현 시금고 운영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에 나서면서 수주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목포시의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와 통합관리 기금 등 목포시의 모든 예산을 관리할 시 금고를 제1, 2금고로 나누어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모했다.

현재 목포시 제1금고는 9200억, 제2금고는 1200억 규모(올해 기준)로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목포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10개 은행이 대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설명회를 갖고 10일과 11일 이틀간 제안신청서를 받아 오는 16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시금고를 선정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변호사, 세무사 등 민간분야 전문가로 짜여 진다.

목포시 세정과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의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금융기관별 프리젠테이션(7분)과 질의·응답시간이 주어진다.

평가항목은 5개 분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등이다.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은 주금고, 2순위 금융기관은 부금고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 금융계는 이번 금고선정에도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을 포함해 3개 금융기관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목포시 최대 현안인 대양산단 분양과 관련 유리한 제안을 하는 금융기관이 근소한 차이겠지만 금고 지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목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최근 시금고에 대한 시중은행 금융기관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올해 기준으로 9200억 규모의 목포시 제1금고는 기업은행이, 1200억 규모의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이 각각 맡고 있다. 차기 시금고 선정도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취약한 행정환경, 지혜 모아 정면 돌파
혁신박람회·가을페스티벌 철저 준비를"

김종식 시장 강력 주문

"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행정환경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목표 달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감하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종식〈사진〉 목포시장은 최근 8개 출자·출연기관장과 함께한 시정현안회의에서 "시정과 관련해 SNS상에서 나도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붕 없는 박물관서 텐트 없는 박람회'를 슬로건으로 목포에서 열리는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느냐가 목포시 공직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혁신 박람회인 만큼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빈집을 활용한 최초 사례로 원도심 활성화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해서도 "다도해와 유달산 비경 등 낭만항구 목포 풍경을 조망하는 세계적 수준의 '뷰'를 자랑해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관광객 700만 돌파라는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다. 내년이면 목포 1000만 관광객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또 목포 가을 페스티벌의 서막을 연 세계 마당페스티벌에 대해서는 "행사를 동시다발로 개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사의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행사 하나 하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끝으로 김 시장은 "가용예산이 너무 적다. 3개 공공기관을 유치했는데 이들 시설 건립에 필요한 땅값만 100억 원이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내년 공모사업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 잘 견디고 어려움을 돌파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고통 호소

터 파기 장비 24시간 가동
소음·분진·진동 피해 민원
"시, 봐주기식 행정" 지적도

목포시 상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JS-클래스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짓는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5층, 지상 49층으로 4개동 640세대가 들어설 계획으로 목포에서 최고층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장비(터 파기 장비)를 주·야 24시간 동안 가동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고층 아파트 현장이 교통량이 많은 도심 중심지인 만큼 앞으로 레미콘차량 등으로 교통 불편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시공사와 목포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 현장 관계자는 "특정 장비를 24시간 가동해 소음이 발생한 것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음과 분진 등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해 2번에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특정 장비 공사 때 관정으로부터 필증을 받아야하고 24시간 운영 땐 신고를 하게 되어있지만 24시간 가동한 문제의 장비는 공사에 사용하는 직접적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필증이나 운영 시간 등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현장 관계자는 특정 장비를 24시간 운영했다고 인정하는데도 시 관계자는 밤 11시까지만 장비를 운영했다는 답변으로 봐주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타 지역 업체들이 지역에서 공사를 할 땐 해당 지역 업체를 공사현장에 참여시켜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지만 이 현장의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이러한 여론을 의식 한듯 지역 업체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켜 현장 설명회 등 입찰을 실시했지만 견적 순위 등 참여업체 선정 규정도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형식적인 입찰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지역 업체 관계자들은 "시행사에서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놓는 바람에 견적에서 1순위가 되어도 탈락하는 등 들러리만 서 비용과 시간에서 소모적인 입찰이었다"고 허탈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 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 만족도 개선

부흥동 민원친절 영예의 대상
옥암동·하당동 우수시책 선정

목포시 지역 23개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실시한 '2019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지난해 대비 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민원친절 평가에서는 부흥동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우수상은 이로동과 용당2동(부상 50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연산동, 신흥동, 죽교동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와 함께 전문 모니터요원이 3차례 실제 민원인을 가장,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 한 결과여서 신뢰도가 높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평가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전년대비 3.4포인트 상승한 83.6점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민원인 응대태도(86.3)와 시설환경서비스(85.5)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직자의 민원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분석해 민원응대 시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23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이 달(8월)의 우수시책으로 하당동의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원'과 옥암동의 '삼향천 산책로 정비' 시책이 각각 선정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헷갈리는 수산시설 명칭 바꾼다…목포시 명칭 공모

전국 제1의 수산도시를 표방한 목포시에는 수산 관련 시설들이 유난히 많지만 명칭이 비슷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알기 쉬운 이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젓갈과 건어물 판매시설인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를 비롯해 활어 위판장인 북항의 '해양수산 복합 센터', 그리고 연산동에 위치한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등 3개 시설의 명칭이 흡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협이 들어서는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 대양산단에 있는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관 등 유사한 명칭도 많다.

이로 인해 외지에서 목포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목포시민들마저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시는 시설물 특성을 살리면서도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기로 하고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해양수산 복합센터,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등 3개 시설의 명칭 공모에 들어갔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마감은 20일까지다. 접수는 목포시 행정복지센터나 이메일 candle3@korea.kr, 팩스는 061-270-3658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 3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